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미-이란 전쟁 불확실성에도,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낙폭 축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일(수) 미국 증시는 미-이란 협상 중단 및 공급 재개에 따른 WTI 6%대 급등에도, 예상에 부합했던 6월 FOMC 의사록, 마이크론(+1.1%), 샌디스크(+6.9%) 등 증시 불안의 중심을 초래했던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1.1%, S&P500 -0.3%, 나스닥 +0.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최근 주식시장은 지난주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둘러싼 AI 수요 위축 우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폭락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연쇄 조정으로 심리가 취약해졌던 상황. 여기에 전일 부각된 미-이란 휴전 중단 사태가 추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증시에 가할 수 있기는 함.

그러나 지정학적 부담의 지속력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 트럼프가 전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여전히 미국은 협상 의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 전일 미국 증시 반등, WTI 상승분 반납했다는 것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주식시장의 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또 시장이 전쟁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이었다는 점도 되새겨볼 시점. 이런 측면에서 전일 기준 미국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5%로 3~4월 전쟁 기간 평균(4.0%), 6월 평균(2.1%)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번 협상 중단 사태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따라서, 현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보다는 2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주도주인 반도체, AI 업황을 둘러싼 사안(피크아웃 발생 vs 업 사이클 지속)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직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미-이란 전쟁 불안감 재부각,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 재확산 여파로 투매가 출현함에 따라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면서 끝내 5%대 급락세로 마감(코스피 -5.4%, 코스닥 -5.6%).

금일에는 미-이란 휴전 중단 부담에도, 최근 3거래일 연속 폭락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 속 미국 반도체주 반등, 코스피200 야간선물 4.1%대 반등 성공 소식 등이 저가 매수 유인을 만들어 내면서 반등에 나설 전망.

현재 코스피는 올해 몇차례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60일선을 하향 이탈한 가운데, 고점대비 -20.5%를 기록하며 기술적인 약세장 초입에 들어온 상태(코스닥은 200일선 하향 이탈 + 고점대비 -35.9%). 주가가 전망을 만들어 내는 특성이 있는 만큼, 급락을 연이어 맞다 보니, 노이즈를 평소보다 더 확대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조성 중.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 등 펀더멘털보다는 부정적인 내러티브(AI 투자사이클 피크아웃, 메모리 가격 하락 돌입 가능성 등)에 휩싸여 추가 급락 가능성을 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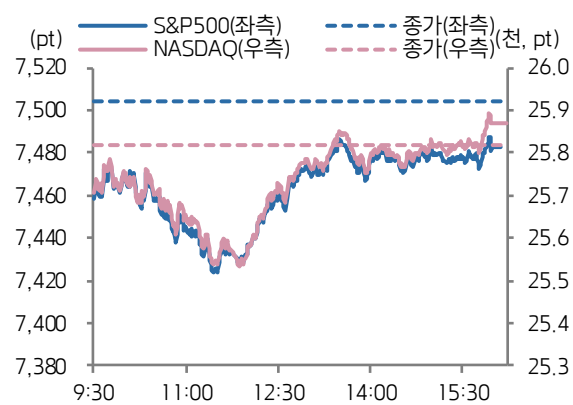
순식간에 냉각된 투자심리를 하루 이틀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급락을 통해 바닥권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일 코스피의 선행 PER이 6.25배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점(6.27배)를 하회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코스피가 직전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던 사례를 보면, 08년 금융위기(-54.5%), 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위기(-25.9%), 20년 코로나 팬데믹(-35.7%), 22년 연준 고강도 긴축(-31.2%), 25년 상호관세(-20.7%) 등 대형 위기가 트리거였음.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외부 위기에 처했거나,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을 맞았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 60일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맞지만, 이탈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20일 이격도(주가와 20일선의 괴리)가 86%대로 급락했기 때문. 20일 이격도가 86%대까지 내려온 것은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인 75%이후 처음 있는 일이므로, 기술적인 과매도 신호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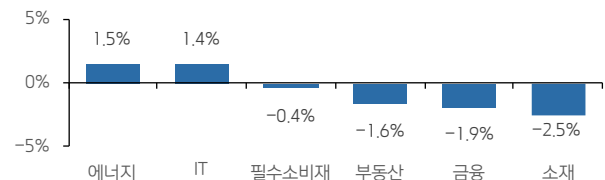
결국 펀더멘탈 악화가 가시화 않은 채 출현했던 최근 연쇄 급락은 다분히 과도했던 만큼, 앞으로 추가 하락의 기댓값은 낮다고 판단. 물론 과거와 달리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섀트감마 현상이 수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손이 잘 안 나가는 환경이기는 함(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of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 7월 6일 +28.7% -> 7월 7일 +25.1% -> 7월 8일 +28.3%). 그렇지만 코스피 7,000pt 초반까지 레벨 다운된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MLCC, 전력기기, 증권 등 낙폭 과대 기존 주력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 대응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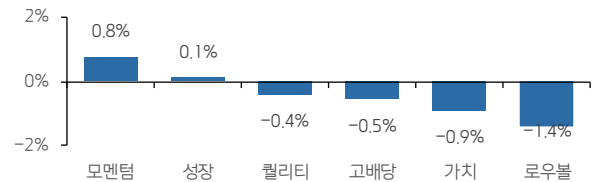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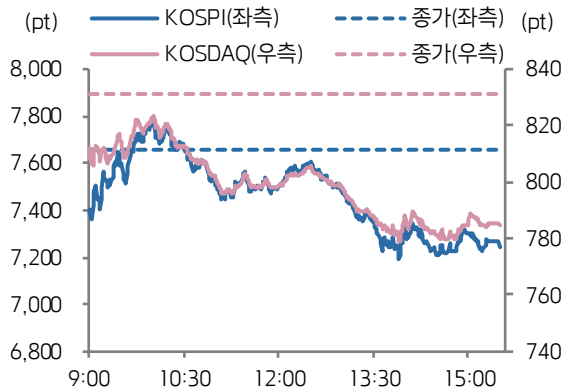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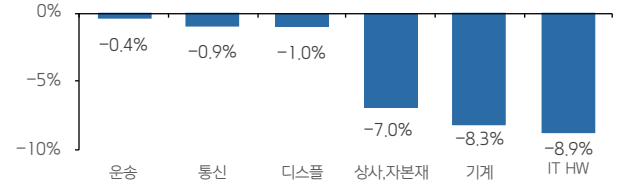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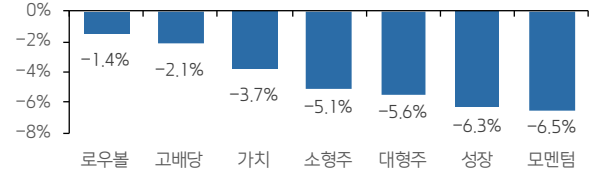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13.39	+0.88%	+15.28%	GM	76.24	+0.28%	-6.25%
마이크로소프트	383.34	-1.41%	-20.74%	일라이릴리	1,215.83	-1.6%	+13.13%
알파벳	361.92	-1.39%	+15.63%	월마트	113.10	+1.4%	+1.52%
메타	603.12	-2.02%	-8.63%	JP모건	330.62	-2.54%	+2.61%
아마존	243.62	-0.96%	+5.55%	엑손모빌	141.13	-0.4%	+17.28%
테슬라	394.06	-2.19%	-12.38%	셰브론	175.97	+1.13%	+15.46%
엔비디아	204.12	+3.65%	+9.45%	제너럴일렉트릭	113.10	+1.4%	+1.5%
브로드컴	388.69	+4.83%	+12.31%	캐터필러	948.08	+0.85%	+65.5%
AMD	517.41	+0.25%	+141.6%	보잉	224.95	-2.9%	+3.61%
마이크론	948.80	+1.11%	+232.43%	넥스트에라	87.44	-1.2%	+8.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246.79	-5.35%	+71.96%	USD/KRW	1,504.80	-0.74%	+4.54%	
코스피200	1,158.37	-5.48%	+91.16%	달러 지수	101.06	+0.03%	+2.78%	
코스닥	785.00	-5.56%	-15.18%	EUR/USD	1.14	+0.04%	-2.8%	
코스닥150	1,367.45	-6.61%	-11.62%	USD/CNH	6.81	+0.04%	-2.43%	
S&P500	7,482.71	-0.28%	+9.31%	USD/JPY	162.59	+0.3%	+3.75%	
NASDAQ	25,870.65	+0.2%	+11.3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348.39	-1.09%	+8.92%	국고채 3년	3.776	-0.2bp	+82.5bp	
VIX	16.90	+4.77%	+13.04%	국고채 10년	4.250	+3.3bp	+86.5bp	

러셀2000	2,956.39	-0.88%	+19.12%	미국 국채 2년	4.218	+3.3bp	+74.5bp
필라. 반도체	12,574.97	+2.23%	+77.53%	미국 국채 10년	4.579	+2.8bp	+41.2bp
다우 운송	21,733.93	-0.18%	+25.22%	미국 국채 30년	5.072	+1.6bp	+22.8bp
상해종합	3,970.88	-0.49%	+0.05%	독일 국채 10년	3.092	+9.9bp	+23.7bp
항생 H	8,084.22	+4.04%	-9.3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503.60	-2.15%	-10.23%	WTI	73.52	+4.37%	+28.8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8.02	+5.2%	+28.22%
Eurostoxx50	6,204.91	-1.82%	+7.14%	금	4,082.40	-1.8%	-8.06%
MSCI 전세계 지수	1,114.06	-0.64%	+9.8%	은	58.16	-4.54%	-17.62%
MSCI DM 지수	4,811.74	-0.65%	+8.61%	구리	605.45	-1.9%	+6.56%
MSCI EM 지수	1,677.54	-0.58%	+19.45%	BDI	2,875.00	+2.79%	+53.17%
MSCI 한국 ETF	182.72	+0.79%	+87.94%	옥수수	456.25	-1.72%	-0.9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07.75	-1.74%	+11.36%
비트코인	62,059.97	-2.52%	-29.19%	대두	1,192.25	-0.46%	+12%
이더리움	1,735.11	-2.7%	-41.73%	커피	309.80	-2.46%	-3.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